정부개입으로 미완의 결실…온전한 화해 과제

통합종단 60년, 과거서 현재를 보다

① 성립 배경 ② 출범 과정 ③ 출범 이후 ④ 주요 인물 **⑤ 평가와 과제 (끝)**

태고종 창종으로 반쪽에 그쳐
온전한 통합은 불가능한 지향
미완은 또다른 결실로 이어져

각기 다른 정체성 토대로 발전
선암사 등 분쟁 잔여물은 여전
현대 한국불교가 해결할 숙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62년 출범한 통합종단 조계종은 미완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구 · 대처간 분쟁을 넘어서는 온전한 통합은 결국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처승 측을 주축으로 한 태고종의 분리와 창종으로 온전한 통합에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조계종과 태고종이 각각의 정체성으로 한국불교를 이끄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태고종 창종은 "불교가 기나긴 내부 분쟁을 종식하고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계기"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수년간 지속된 분쟁은 각종 사회적 문제와 종교적 위상 실추 등 악순환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태고종의 창종으로 인한 결별은 분쟁의 종식으로서 의미가 더 컸던 셈이다.

실제로 1970년 5월 8일 문화공보부가 태고종 등록을 마침내 인정하면서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태고종 창종을 보도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모든 언론들이 '분쟁의 종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지속돼 온 비구 · 대처 갈등이 세간의 관심사였음을 드러낸다.

동아일보는 5월 12일 기사에서 "문공부는 태고종 등록이 결코 분종이 아닌 새 종단의 창종이기에, 불교 분쟁은 일단락 됐다는 견해"라며 "16년간 끌어본 불교 분쟁을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태고종이 과거의 모든 분쟁과 인연을 끊고 새 출발해 건실한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연말 문화계 결산기사에 태고종 창종을 주요이슈 중의 하나로 꼽으며 "한국불교의 고질이 된 비구 · 대처 간 이전투구가 태고종 창종으로 매듭을 지었다"며 "그럼에도 정부에 의한 또다른 개입의 결과라는 점에서 불씨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의한 또다른 개입의 결과'는 태고종이 정식종단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를 일컫는다. 당시 문공부가 태고종의 종단등록을 수차례 반려한 이유는 조계종의 반대 그리고 분규사찰들로 인한 것이다. 태고종이 정식종단이 될 경우, 당시 대처승측이 점유하고 있던 조계종 사찰들이 태고종 소속이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태고종은 '분규사찰들과 무관하며 이 사찰들을 귀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5월 8일 정식종단으로 인정받았다.

사실 온전한 통합종단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지향점이었다. 불교계 내부적으로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문제로 확대된 비구 · 대처 분쟁의 반강제적 종식을 위해 정부가 고안한 정책에 의한 합치였기 때문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및 1970년 태고종 창종을 보도한 당시 신문 기사들. 출처=한국불교 100년사

이후 두 종단은 오히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조계종은 같은 해 10월 사상초유 규모로 '세계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10여개 국가의 불교인들이 '세계불교연합'을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조계종은 빠르게 내실을 다져나가는 동시에 교세를 크게 확장했다. 5년만에 현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부지에 불교회관을 건립했는데, 당시 가장 큰 현대식 건물로 손꼽힐 정도였다.

태고종 또한 하나의 종단으로 세간의 인정을 받았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고종은 창종 후 종단 내부 정비와 확충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종단(大宗團)의 면모를 갖췄다. 특히 조선일보는 "태고종이 기본방침으로 '평등과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 협동해 사회정화에 봉사한다'고 천명한 것은 20년 가까이 끌어온 비구 · 대처 분쟁으로부터 불교계가 각성한 느낌"이라며 "두 종단이 이제는 싸우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에 나서달라는 것이 재야불교인들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평했다.

어찌보면 태고종은 온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덕에 이뤄낸 또다른 결실이다.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종단이 각기 다른 길을 통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종단 미완의 결실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순천 선암사 소유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비구 · 대처간 갈등 봉합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의 반강제적 통합은 분쟁의 표면적인 종식은 이뤄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의 잔여물은 여전히 남았다. 통합종단 조계종 출범과정에서 활용된 불교재산관리법 또한 여러 형태로 변화하며 사찰을 옭아매는 족쇄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곧 과거에 비추어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한국불교의 과제가 아닐까.

"첫 비구니 어산어장 탄생, 불교의례 발전으로"

전국비구니회, 7월27일
동희 스님 지정 고불식



전국비구니회는 7월 27일 '조계종 초대 비구니어산어장 동희 스님 고불식'을 봉행했다.

동희 스님이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 어산어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비구니회가 이를 부처님전에 고하는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비구니 어산어장 탄생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전통불교 의례의 지속적인 발전을 발원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27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조계종 초대 비구니어산어장 동희 스님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전국비구니회 상용염불교구사 동환 스님의 명종 · 법고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약력 소개(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동희 스님과 진관사수륙재보전회 어산회의 '삼보전에 올리는 공양무', 회장 본각 스님의 고불 등으로 이어졌다.

본각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비구니 어산어장 지정은 비구니계의 영광인 동시에 비구니의 위상을 현창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동희 스님의 비구니 어산어장 지정에 6천여 전국비구니 회원들이 수희동참하며 이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스님들과 한국불교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여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희 스님은 "어산어장 지정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다. 종단과 전국비구니회, 많은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후학들에게 회향하겠다. 평생 걸어온 이 길을 이제 후학들을 위해 더 열심히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동희 스님의 어산어장 지정은 우리 비구니승가 모두의 성과이자 공덕"이라며 "수륙재는 한마디로 무량공덕의 법석이라 한다. 진관사는 동희 스님의 어산어장 지정을 계기로 향후 전통불교를 계승하고 발전시키 위한 바라지에 가일층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불식에서 동희 스님과 진관사는 전국비구니회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윤 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탄원

종지협, 정치 · 경제인 사면 요청
"위기극복 · 국민화합 이뤄지길"

7대 종단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원행, 이하 종지협)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대화합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 탄원서를 전달했다.

종지협은 7월 26일 '국민대화합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길 희망한다'는 제하의 탄원서를 발표했다.

종지협은 탄원서를 통해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국민 모두의 행복과 공동선 추구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검토되고 있는 8 · 15 특별대사면 조치 계획을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적극 지지하는 바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난 극복이라는 국가적 당면 과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던 분들이 다시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지협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과 함께 서민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체제 가동

전국비구니회, 7월 27일 회의서
회칙에 근거한 첫위원회 출범해

올 10월 13일 예정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비구니 종회의원 10석에 출마할 후보를 전국비구니회 내부규정에 근거해 선출 및 추천함으로써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눈길을 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27일 법룡사에서 제 1차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칙에 근거한 첫 선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됐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에 따른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구니 종회의원으로서 여러 종무정책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다.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회는 회의결과 회장 본각 스님을 선출위원장으로 추대한데 이어, 간사 소임에 총무부장 현진 스님을 선임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 23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이며, 후보자 자격심사는 9월 2일 진행한다. 선거인단은 9월 5일 확정되며 선거일은 9월 15일 오후 1시다.

송지희 기자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